



## 이재명 대통령, 이혜훈에 "국민 검증도 받아야...내란 단절 표명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대통령실 이전 작업이 마무리된 청와대 본관으로 첫 출근하고 있다. 2025.12.29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권 내부의 의구심과 관련해 "차이를 잘 조율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의견을 도출할 수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이런 언급을 소개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도 격렬한 토론을 통해 견해 차이의 접점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그 자체가 새롭고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약간의 견해차가 있을 때 중지를 모아가는 과정에서 차이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이 차이를 잘 조율해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의견을 도출할 수 있으면 된다"고 언급했다.

확장재정 기조에 대한 비판적 의견 등은 토론을 통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으로 수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일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의사 표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사용한 정

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 "용납할 수 없던 내란 등에 대한 발언에는 본인이 직접 좀 더 충분히 소명해야 하고, 그 부분에 있어 단절의 의사를 좀 더 표명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 후보자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인사권으로 지명할 수 있지만 충분히 자기 실력을 검증받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검증'도 통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런 요구를 이 대통령이나 참모들이 이 후보자에게도 전달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강 대변인은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오늘 언론에서 그런 게 논란이 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으신 뒤, '그렇다면 여러 국민의 의문과 질문에 대해 후보자 본인이 스스로 단절의 의사가 있는지 (해명할)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도 이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이 후보자가) 초기부터 경제와 관련된 인적 풀에 포함이 됐던 것으로 안다"며 "(탄핵 반대 전력까지) 모두 포괄해 최종적으로 낙점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게 이재명 정부가 리스크가 적은 정책 방향을 선택·집행하는 데

도움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낙점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와 같은 날 발표된 조정식 청와대 정부특별보좌관 임명이 22대 후반기 국회의원 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일각의 해석에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통합벡타이" 맨 이재명 대통령 첫날...지하명커서 안보태세부터 점검지시자 환영 속 오전 9시 13분 도착...참모와 차담회 후 위기관리센터 방문...365일 24시간 철저히 근무해달라...비상 집무실 살피고 이동통신 과와 수출 호조에 "中企·서민 쟁쟁해달라" 당부...靑서 첫 재가는 아그레망 부여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이른바 '통합 벡타이'를 매고 청와대에서의 첫날을 보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한 2022년 5월 9일 이후 1천330일 만에 현직 대통령이 청와대로 복귀한 상징적인 날을 맞아 통합과 소통의 의지를 다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3분께 전용차를 타고 청와대 경내로 들어섰다. 이 대통령의 차량이 지나가는 길 앞에는 지지자들이 태극기를 들고 "이재명 만세", "파이팅" 등을 연호하며 첫 청와대 출근을 환영했다.

본관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검은색

민주당 의구심엔 차이 조율 과정 필요 반탄 이력'에 대국민 해명 요구

김남준 "모두 포괄해 최종 낙점...대통령 정책 방향 바뀌지 않을 것"

코트에 흰색, 빨간색, 파란색이 배색된 사선 줄무늬 벡타이 차림으로 차량에서 내렸다.

이는 '통합'을 상징하는 벡타이로, 이 대통령은 올해 6월 4일 취임 선서식을 비롯해 중요한 자리마다 이 벡타이를 착용한 바 있다.

새로 이사한 청와대에서도 취임 첫날과 같은 각오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각오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로운 출발과 소통, 통합을 중시하는 의지를 담았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본관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참모진을 향해 "왜 나와 있어요? 아, 이사 기념으로?"라고 농담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본관에서 참모들과 아침 차담회(티타임)를 주재하고 주요 현안과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경제성장수석실이 올해 수출과 외국인 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경제성장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흘러갈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지시했다.

민정수석실로부터 마약·스캠·온라인 도박·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할 초국가 범죄 테스크포스(TF)가 출범한다는 보고를 받고 "보이스피싱 감소 현황을 국민에 잘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차담회를 마친 이 대통령은 복귀 후 첫 일정으로 '청와대 지하명커'로 알려진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안보·재난분야 시스템을 점검했다.

군 통수권자이자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청와대 집무 첫날부터 관련 대비 태세를 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를 위해 시설개선공사를 진행하면서 안보·재난 관련 시스템을 중단 없이 가동한 센터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365일 24시간 철저히 근무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센터 내의 비상 집무실을 살펴보고 "쏟아지는 거의 없겠지"라고 묻기도 했다.이에 황인권 경호처장이 안보

이슈 대응을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훈련 때 사용하게 될 것이라 답했고, 함께 이동 동선을 파악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여민1관 집무실에서 주한베냉공화국 대사 내정자에게 아그레망을 부여했다. 이는 청와대에서 행한 이 대통령의 첫 재가로 기록됐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이 아니라 '백성'과 함께한다"는 뜻의 여민관을 집무실로 택한 것은 국민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국민주

권 정부의 철학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일상적 회의부터 3실장 중심의 집중적 회의까지 여민관에서 이뤄지는 원활한 의사결정구조를 보여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복귀를 통해 '과정이 투명한 일하는 정부'를 표방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를 회복하고, 세계가 찾는 외교안보의 중심으로 거듭남으로써 국민께 효능감을 드리는 '이재명식 실용주의'를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기자

### 민주당, "3대특검 종료에

### 2차특검 드라이브"서해피격 특검도 시사

헌법 유린한 불법 내란 티끌까지 찾아낼 것...새해 1호 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김건희 특검팀의 활동 종료로 '3대 특검' 내란·김건희·채해병이 모두 종료하자 곧바로 2차 종합특검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김건희 특검을 마지막으로 윤석열과 관련된 '3대 특검' 수사가 모두 마무리됐다"며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민생을 파괴한 불법 내란과 브이제로(VI) 김건희의 비리를 티끌 하나 남김없이 찾아내 반드시 죄를 묻겠다"고 밝혔다.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새해 첫 법안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청래 대표도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새해 1호 법안은 2차 종합특검이 될 것"이라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이미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2차 종합특검법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내란 특검팀이 규명하지 못한 이른바 '노상원 수첩'이 추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김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과 김 여사의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개입 및 부정 청탁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 특검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주요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만큼 2차 특검은 새로운 성과가 없는 '재탕 특검'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한다.

이 같은 비판에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그것이야말로 국민의힘이 아직도 내란 동조 세력임을 증명하고 자인하는 것"이라며 "일제 강점기의 역사를 청산하지 못했기에 지금도 그 역사가 이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선거에 불리하지만 민주당은 주어진 역사적 책무와 국민이 명령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할 수 없이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힘을 향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싶으면 (특검에) 빨리 협조해서 끝내고 민주당과 함께 민생과 경제의 경쟁자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귀영 기자

